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11. 03 ~ 2012. 11. 09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정부 기초연구에 장기 지원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전력시스템 수출을 위한 아시아시장 개척 본격화
- 저패디스플레이, 액정패널 생산능력 배증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① 주간경제초점 : 일본정부 기초연구에 장기 지원

### □ 10년 후 사회적 과제에 대비

- 일본정부는 2013년부터 10년 후 사회적 수요가 높은 연구개발에 착수. 금년 노벨생리학·의학상 수상 테마인 iPS세포 등에 이어, 차세대 기초과학의 싹을 발굴,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비하려는 의도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10년 후 예상되는 사회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
  - 근로여성의 양육 지원
  - 원격지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
  - 장애자와 정상인이 같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
  - 저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고부가가치제품과 서비스

### □ 새로운 지원제도의 성패는 민간의 선견지명이 관건

- 최장 10년의 장기간 지원은, 1~5년 후의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했던 종래의 제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서,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세대기술을 육성한다는 방침
- 전국 12개 지역에 산·학 연대 거점을 구축, 각각 연간 3억~7억엔을 지원, 연구대상은 금년 중으로 구체화할 예정
- iPS세포나 재생가능에너지 등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, 종래에 없던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임
  - 이미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이 필요 없는 신소재 개발이나 iPS세포의 연구 등은 시장이 예견되는 분야임
  - 그러나 새로운 지원제도의 성패는 민간의 선견지면에 달려있다는 판단
-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로봇기술로 고령사회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고도의 인공지능이나 제어기술은 자동주행차량이나 신형 가전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것
  -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이나 후각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기술도 기대되고 있으며,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IT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

기대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성과가 나오면 실용화할 계획

- 산학연대 거점은 혁신센터(COI)로 인정, 연구나 설비, 전문 인력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문부과학성이 지원

## □ 장기간에 걸쳐 높은 경쟁력 유지

- 일본정부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지원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, 그 배경은 기초연구의 성과를 활용, 장기간에 걸쳐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데 있음
- 사회문제나 시장이 확실한 시점에서 연구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이미 늦다는 판단, 지금부터 씨를 뿌려 10년 후에는 세계 최첨단을 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임

## □ 다양한 인력, 조직,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

- 전국 4개 지역에 구축하는 대규모 거점은 약 70명, 8개 지역의 거점은 약 30명 규모로 시작할 계획
- 대학 교수에서 포스트 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기업의 연구자 외에 지적재산권이나 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
- 사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모델로 삼는 것은 유럽의 ‘미래 센터’임
- 영국에서는 미래사회를 상상하여 상정된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기업이나 지자체, 비영리조직(NPO) 등과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, 이 같은 연구체제는 영국을 포함, 1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음
- 일본도 기업, 정부, 자치체 등이 모여 아이디어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 중
- 국가전략회의 분과회의에서 작성한 국가 장기비전인 「프런티어 구상」 보고서 등을 토대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

## 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### □ 전력시스템 수출을 위한 아시아시장 개척 본격화

- 일본의 상사와 중전기메이커들이 잇따라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력시스템 수출에 나서고 있음
  -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인도 서부에서 가스화력발전사업에 참여, 도시바와 히타치제작소는 송배전분야의 시장을 개척
  -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수출이 역풍이 맞고 있는 가운데, 고성능 발전·송배전·절전시스템분야에서 일본 내 공급불안을 줄이고,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시장을 공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
- 일본은 민·관 합동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해왔으나, 원전사고 후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해외수주 활동이 부진
-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전원을 화력 등으로 넓혀 전력공급시스템을 판매하고 경제산업성이 이를 지원해주고 있음
  - 미쓰비시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인도 서부에서 인도 전력회사와 협력, 고효율 가스화력 발전사업에 참여할 방침
  - 발전규모는 120만kw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서 활용.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공업단지 등 특정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구제도 활용 방안을 놓고 주정부와 조정중임
  - 도시바는 금년 중 송배전시스템수출을 위한 조사에 착수. 인도에서는 허술한 송전망의 관리가 정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송전량을 관리하는 통신 인프라 등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
  - 히타치제작소는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서부지역에서 송전망을 정비하는 대형축전지나 전압 제어장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
  -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J파워와 추고쿠전력이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사를 개시. 미얀마에서도 엔차관으로 양곤의 송배전망을 정비하는 안이 부상
- 전력소비억제시스템을 수출하는 움직임도 있는데, 일본종합연구소, 도시바, 일본IBM, 시미즈건설 등이 말레이시아 청사에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을 도입

-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전력불안문제에 직면.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아시아의 전력수요는 2035년까지 2.5배로 확대되고,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·송배전 투자규모는 2035년까지 8.8조엔
- 일본기업들은 중국리스크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생산거점을 이전. 전력시스템수출로 아시아의 전력불안문제가 완화되면 일본기업들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셈임

## □ 저패디스플레이, 액정패널 생산능력 배증

- 저패디스플레이가 2014년도까지 스마트폰용 패널의 생산능력을 배증
  - 저패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액정패널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20%로 제1위로 200억~300억엔을 투자, 중국공장의 패널 조립능력을 높일 계획임
  - 스마트폰용 납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의 추격을 뿌리친다는 것
- 패널제조는 유리기관에 막을 형성하는「전공정」과 전극 등을 붙여 최종 조립하는「후공정」으로 나뉘는데, 이번에 증강하는 것은「후공정」
  - 파나소닉에서 매수한 전공정이 있는 모바라(茂原)공장이 2013년 6월 가동예정으로, 이에 맞추어 후공정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임
  - 모바라공장(치바현 소재)의 안정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2014년에는 중소형 패널생산능력이 월 47만매로 금년에 비해 2배로 확대
- 저패디스플레이는 후공정이 있는 공장을 중국에 3개, 대만에 1개를 가지고 있음. 이중 중국의 공장에 라인을 증설
  - 신설라인에서는 자동화로 생산효율화와 비용절감이 가능. 필리핀에서도 후공정을 가진 기업에게 생산의 일부를 위탁
  - 중국과 필리핀에서 후공정의 생산능력이 증강되면 전체적으로 풀가동이 가능한 체제가 되는 셈임

###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일본정공	2012.11.6	자동차용 베어링	멕시코	직접투자/생산자회사 설립, 투자규모 60억엔
오이레스	2012.11.6	베어링	중국/대련삼환 복합기술개발	자본제휴/주식의 37%취득, 투자규모 약 5억엔
닛신보우브레이크홀딩스	2012.11.6	브레이크	태국	직접투자/공장 신설, 투자규모 약 60억엔
패밀리마트	2012.11.6	소매업	필리핀/아야라 그룹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출자비율 37%
국제석유개발제석	2012.11.6	가스전	인도	직접투자/탐광광구 권역의 26% 취득
라쿠텐	2012.11.7	물류	프랑스/알파다 이렉스서비스즈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규모 수십억엔
도요타통상	2012.11.7	알루미늄합금	인도/센츄리 메탈리사이클링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출자비율 30%, 투자액 수십억엔
타케다약품	2012.11.7	제약	미국/엔보이	직접투자/기업매수 (자본금 약 6억4천만엔)
스미토모상사	2012.11.8	철도차량	미국/주정부	수주/철도차량 130량, 수주가액 약 280억엔
저팬디스플레이	2012.11.9	중소형액정패널	중국	직접투자/생산능력 증강, 투자규모 200억~300억엔
미쓰이화학	2012.11.9	특수수지	싱가포르	직접투자/공장신설, 투자규모 약 100억엔
이데미츠	2012.11.9	석탄탄광	인도네시아/바란루치삭세사라나	직접투자/3%출자, 투자규모 약 10억엔

\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####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기술과 문화에 의한 일본재생』 일본국립국회도서관, 11월3일

\*출처:[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\\_3533027\\_po\\_20120102.pdf?contentNo=1](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3533027_po_20120102.pdf?contentNo=1)

(2) 『과학기술요람 2012년판』 문부과학성, 11월6일

\*출처:[http://www.mext.go.jp/b\\_menu/toukei/006/006b/1327566.htm](http://www.mext.go.jp/b_menu/toukei/006/006b/1327566.htm)

(3) 『일중간 정세악화와 일본경제』 미쓰비시동경UFJ은행, 11월6일

\*출처:[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revi2012/review\\_0120121026.pdf](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revi2012/review_0120121026.pdf)

(4) 『강인한 경제의 구축(중간보고서)』 산업경쟁력간담회, 11월8일

\*출처:<http://cocn.jp/common/pdf/thema56-s.pdf>

(5) 『중소모노즈쿠리기업의 기업간 연대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』 동경상공회소,  
11월9일

\*출처:<http://www.tokyo-cci.or.jp/page.jsp?id=22743>